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②	⑤	②	①	③
6	7	8	9	10
⑤	④	⑤	⑤	①
11	12	13	14	15
③	③	①	④	③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③	⑤
21	22	23	24	25
③	①	③	⑤	⑤
26	27	28	29	30
④	④	①	④	⑤
31	32	33	34	35
④	⑤	⑤	③	①
36	37	38	39	40
③	④	④	⑤	⑤
41	42	43	44	45
④	④	②	①	⑤
46	47	48	49	50
②	②	②	③	②

<1번 오답 해설>

④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초기 철기 시대에 이르러 철제 농기구와 함께 철제 무기도 만들어 사용하였다(이로써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만 사용).

**쟁기: 논이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토양의 상층을 갈아엎어 잡초를 제거하거나 파종이나 작물 재배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처음에는 사람이 쟁기를 끌었으나 점차 소나 말 등을 이용하였다(오늘날에는 트랙터를 동력으로 이용).

***쇠스랑: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풀무덤 등을 쳐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소시랑, 소스랑, 쇠시랑, 소스랭이, 쇠서랑 등).

⑤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 ②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③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④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 ⑤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정답> ②

'부여 송국리 축제에 초대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모시는 글로 '사유 재산과 계급이 출현한 이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인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당시 생활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요 프로그램으로 '비파형 동검 모형 만들기', '민무늬 토기 조각 맞추기', '증강 현실로 환호와 목책 보기'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또 고려 시대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③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와 뼈바늘)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02 - 고조선

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가)의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검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기에 우거왕의 대신(大臣) 성기가 한(漢)에 반기를 들고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왕의 아들 장과 항복한 상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기를 주살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가)을/를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도군을 설치하였다.

-「한서」-

-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④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정답> ⑤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가)의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왕검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기에 우거왕의 대신(大臣) 성기가 한(漢)에 반기를 들고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왕의 아들 장과 항복한 상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기를 주살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가)을/를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도군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 제7대)의 공격으로 고조선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한 사실을 보여준다(기원전 108). 따라서 주어진 자료 속 '(가) 국가'는 고조선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오답 해설>

-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국가는 고구려이다(매년 10월).
- ②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가 존재한 국가는 삼한이다.
*소도(蘇塗):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責禍)**가 있었던 국가는 동예이다.
**책화(責禍):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읍락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責禍)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④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四出道)***를 다스린 국가는 부여이다.
***사출도(四出道): 부여의 지방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 부여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앙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고, 사방에는 그 지방에서 우세한 부족이 다스렸다. 부족장인 제가(諸加)가 관할하였는데 큰 부족으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는 부족의 대표적인 역할만 했으나 점차 귀족화되며 국가의 지배층이 되었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가(家) 또는 수백 가의 호(戶)를 지배하였다.

03 - 충남 공주의 역사적 사실

3.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을 살펴본다.
- ②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곳을 답사한다.
- ③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을 검색한다.
- ④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을 지도에 표시한다.
- ⑤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을 조사한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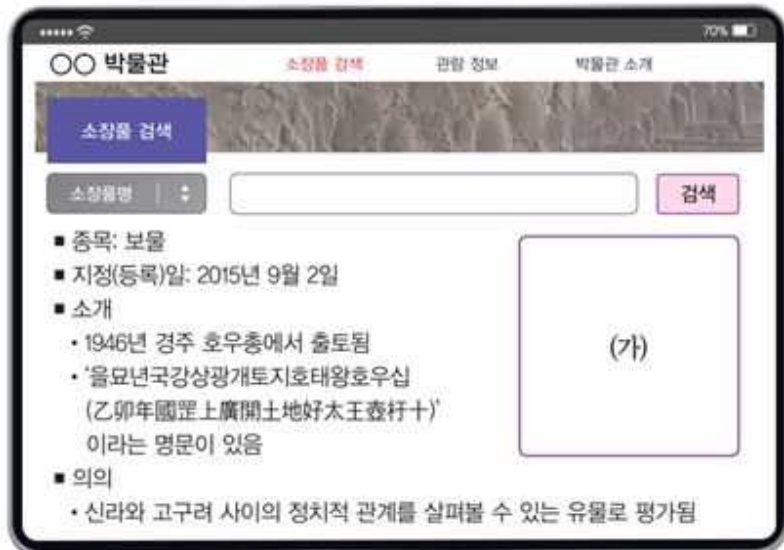
'이달의 역사 인물'로 '문주왕(미상~477), (가)에 백제의 새로운 터전을 잡다'라는 제목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파괴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였다. 그에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위기를 수습하고자 (가)(으)로 도움을 옮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위례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제21대 왕인 개로왕(재위 455-475)이 전사한 것은 475년의 일이다. 이어 왕위에 오른 문주왕(재위 475-477, 제22대)은 '웅진 천도'를 단행하였는데 웅진은 지금의 충남 공주이다(475~538, 웅진 시대 개막). 무령왕(재위 501-523, 제25대)과 왕비의 무덤인 무령왕릉이 발굴된 곳이 공주이다(공주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된 벽돌무덤으로,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벽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백제 무왕(재위 600-641, 제30대)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은 금마저, 즉 지금의 전북 익산 지역이다(639, 무왕 40).
- ③ 백제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은 관산성 전투에서이다(554, 성왕 32).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이다.
- ④ 윤충(?~?)이 의자왕(재위 641-660, 제31대)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은 대야성이다. 대야성은 경남 합천 지역이다. 당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 ⑤ 계백(?~660)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은 황산벌이다(660.7, 의자왕 20)(황산벌 전투). 황산벌은 충남 논산 지역이다.

04 - 호우총 청동 그릇

4.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①

2015년 9월 2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소개로 '1946년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됨',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이 있음'이 나와 있다. 또 의의로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됨'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고구려의 호우명 그릇, 즉 호우총 청동 그릇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명문은 그릇 바닥에 새겨진 글로 을묘년(415년), 3년 전 돌아가신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을 추모해 만든 열 번째 그릇'이라는 뜻이다.

호우총 청동 그릇[호우명 그릇]은 신라의 고분 호우총(경주)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청동 그릇이다. 전술했듯 그릇 바닥에 을묘년인 415년에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여 만든 열 번째 그릇이라는 뜻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호우총은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누구의 무덤인지는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진묘수'이다. 무덤 속에 놓아두는 신상으로, 무덤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넣어둔 것이다.

③ 칠지도로, 백제의 제14대 왕인 근구수왕(재위 375-384)이 왕자로 있을 때 일본 사신을 통해 왜왕에게 보낸 검이다[372(근초고왕 27), 『일본서기』].

④ 고구려의 불상인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으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국보 제119호). 전체 높이는 16.2cm이고, 광배 뒷면에 새겨진 연가(延嘉) 7년이라는 글자로 불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539, 고구려 안원왕 9).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년명(紀年名) 금동불로, 고구려의 승려들이 천불(千佛)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신라의 기마 인물형 토기(주인상)으로 5~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국보 제91호).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되었으며 종자상도 있다(1쌍). 컵 모양의 수구(受口)가 있는 동물형 토기이며, 의식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그릇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의 복식과 마구류 연구에 유용하다.

05 - 고구려 소수림왕 대의 사실

5.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 ①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 ②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④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⑤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정답> ③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의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재위 331-371, 제16대)을 전사시킨 것은 371년(백제 근초고왕 26/고구려 고국원왕 41)의 일이다.

고구려 소수림왕(재위 371-384, 제17대)이 불교를 공인한 것은 재위 2년인 372년이며 율령을 반포한 것은 이듬해인 373년의 일이다(태학 설립은 372년).

오답 해설>

① 고구려 유리왕(재위 기원전 19~기원후 18, 제2대)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도읍을 옮김]한 것은 재위 22년인 기원후 3년의 일이다. 국내성은 오늘날 중국 만주 지린성 지안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② 고구려 미천왕(재위 300-331, 제15대)이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재위 14년인 313년의 일이다. 참고로 미천왕이 (압록강 하류 지역인) 서안평을 점령한 것은 311년(재위 12)이고, 대방군까지 정벌한 것은 314년(재위 15)의 일이다.

④ 고구려 고국천왕(재위 179-197, 제9대)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한 것은 재위 16년인 194년의 일이다.

⑤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255)이 이끄는 군대가 (고구려의 도읍인) 환도성*을 함락한 것은 고구려 동천왕 18년인 244년의 일이다[동천왕(재위 227-248), 제11대]. 환도성은 평지성인 국내성(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포곡식 산성으로, 오늘날 산성자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환도성: 209년(산상왕 13)에서 427년(장수왕 15)까지 고구려의 수도

06 - 고구려 부흥 운동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당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래 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의 군사를 만나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머물렀다. 신라군이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노획한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 ①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② 원광이 왕명으로 결사표를 작성하였다.
- ③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④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 ⑤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 부흥 운동을 벌였다.

정답> ⑤

(가)에 '당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래 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의 군사를 만나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려 온 왜군과 나당 연합군이 백강 어귀에서 맞서 싸운 백강 전투를 가리킨다. 백제 전투가 벌어진 것은 663년 9월의 일이다(백제 부흥 운동). 백강은 지금의 금강 하구(또는 동진강 하구)로 추정하고 있다.

(나)에는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머물렀다. 신라군이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노획한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매소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문무왕 15년인 675년의 일이다(675.9). 당의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주둔하고 있던 매소성의 보급로를 차단한 후 매소성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가능케한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매소성 전투에 대한 이설: 『삼국사기』가 참조한 원전인 중국의 사서 『신당서』에는 '매소성 전투'가 675년 2월로 나오며 신라가 패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임진강 유역의 '매소성'이 아니라 임진강 이북의 '매초성', 즉 '수곡성[매차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검모잠(?~670)이 [한성(황해도 재령)을 근거지로 삼아]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한 것은 670년의 일이다. 보장왕의 외손자인 안승(?~?)을 왕으로 옹립하였는데 당의 정벌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다 안승에게 피살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장문휴(?~?)가 당의 등주[산둥 반도]를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 ② 신라의 고승 원광(555~638)이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지은 것은 진평왕 30년인 608년의 일이다. 결사표는 수[양제]에게 사신을 통해 3년 뒤인 611년에 보내졌다(결사표의 원문은 현재 전하지 않음).
- ③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것은 고구려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살수대첩).
- ④ 신라의 김춘추(603~661)(이후 태종 무열왕)가 당 태종(재위 626-649, 제2대)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진덕 여왕 2년인 648년의 일이다(나당 동맹).

07 - 발해

7.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조영이 죽으니,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 하였다.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 처음에 이 나라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의 태학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혀 가더니,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그 땅에는 5경 15부 62주가 있다.

-『신당서』-

- ① 정사암 회의를 개최하였다.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③ 옥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 ④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정답> ④

위의 자료에 '조영이 죽으니,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 하였다.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왕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재위 698-719)을 가리키고, 아들 무예는 발해의 제2대 왕인 무왕(재위 719-337, 대무예)을 가리키는 말 수 있다. 이어 아래 자료에 '처음에 이 나라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의 태학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혀 가더니,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그 땅에는 5경 15부 62주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발해의 제10대 왕인 선왕(재위 818-830, 대인수)을 가리키는 말 수 있다.

발해의 제2대 왕인 무왕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제3대 왕인 문왕(재위 737-793, 대흠무)은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年號):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정사암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춘 나라는 통일 신라이다(각 687(신라 신문왕 7)/685(신문왕 5)).
- ③ 옥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둔 나라는 고구려이다. 『신당서』에 고구려에는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는데 도독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는 기록이 있다. 대성의 장관이 '녹살'로 되어있는데 이는 '옥살(褥薩·糶薩·辱薩)'을 가리킨다.
- ⑤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한 나라는 후고구려이다(904).

08 - 설총

8.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②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 ③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④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 ⑤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인 화왕계를 집필하였다.

정답> ⑤

'이곳은 이 인물을 제사하는 경주의 서악 서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우리말로 유학 경전을 풀이하여 후학들을 가르침. 원효의 아들임'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신라의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설총(655~?)임을 알 수 있다. 설총은 국왕[신문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인 화왕계를 집필하였다(680년대).

오답 해설>

-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이 편찬된 인물은 각간(角干) 위홍(魏弘)(?~888)과 대구화상(大矩和尚)(?~?)이다(888, 진성 여왕2).
- ②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린 인물은 고운 최치원(857~?)이다(894, 진성 여왕 8). 하지만 시무책은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 ③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한 인물은 원광(555~638)이다(601, 진평왕 23). 앞서 언급했듯이 원광은 걸사표(乞師表)를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
- ④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淸放仁問表)*,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 등을 지은 인물은 강수(?~692)이다.
*청방인문표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629~694)의 석방을 청하는 글이고, 답설인귀서는 671년(문무왕 11)에 지은 당의 행군총관 설인귀의 서신에 대한 답서이다. 당에 숙위 중이던 김인문이 옥에 갇힌 것은 고구려를 멸한 후 신라가 당군에 대항하여 군사를 발하자 당 고종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671년경으로 추정). 이후 당 고종은 청방인문표를 읽고 인문을 석방하였다(672년경으로 추정(신라가 9월에 사죄사 파견), 단지 표문뿐 아니라 두 차례의 침략이 실패하고, 신라가 천왕사를 짓고 당 황제의 만년 수명을 축원하는 법석을 연다는 보고, 김인문을 문무왕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셈 등도 김인문의 석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삼국유사)).

09 - 9세기 통일 신라의 모습

9.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의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백성
- ② 만권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
- ③ 해민국에서 약을 받아 가는 환자
- ④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는 승려
- ⑤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정답> ⑤

'전(傳)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 석탑 납석사리호'가 사진과 함께 나와 있다. 이어 '이 유물에는 민애왕을 추모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는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희강왕을 축출하고 왕이 되었으나, 다른 진골 세력에 의해 1년 만에 제거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민애왕은 통일 신라의 제44대 왕(재위 838-839)이고, 희강왕은 제43대 왕(재위 836-838)이다(해공왕(재위 765-780), 제36대). 납석사리호*에는 민애왕을 추모하는 명문과 함께 경문왕(재위 861-875, 제48대)이 민애(대)왕을 위하여 탑을 건립한 내용과 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863, 경문왕 3). 사실 경문왕은 희강왕의 손자이므로, 민애왕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경문왕이 민애왕의 원탑을 세우고 사리구를 봉안했다는 점에서 왕권을 다지기 위해 적대적 가계와의 화해를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납석사리호는 납적으로 만든 사리호라는 뜻이다. 또 사리호는 사리용기(사기그릇), 즉 사리기(舍利器)의 일종으로,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인 사리(舍利)나 공양물 등을 모셔놓은 그릇이다. 사리병이나 사리함의 용기도 있다. 유물명 맨 앞에 '전(傳)'자가 붙은 것은 유물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고 그렇게 '전해진다'는 의미에서이다. 보물 제7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애대왕 석탑 사리호'라고도 한다.

해상왕 장보고(?~846)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면서 해상 무역을 전개한 것은 9세기 초중반의 일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오답 해설>

- ① (태조 때의 흑창을 확대하여) 의창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 성종 5년인 986년의 일이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할 구휼 기관이다.
- ②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이 (상왕이 된 충선왕에 의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세워진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의 일이다. 충선왕은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만권당으로 불렀다.
- ③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을 둔 것은 고려 예종 7년인 1112년의 일이다.
- ④ 원교국사 의상(625-702)이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정리한 것은 신라 문무왕 8년인 668년의 일이다.

10 - 고려 태조 대의 사실

10.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탐구 활동 보고서 >

○학년 ○반 이름: △△△

1. 주제: (가) 안정과 통합을 꾀하다

2. 방법: 『고려사』 사료 검색 및 분석

3. 사료 내용과 분석

사료 내용	분석
명주의 순식이 투항하자 왕씨 성을 내리다.	지방 호족 포섭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반포하다.	관리의 규범 제시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다.	민생 안정

- ①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②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
- ③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 ⑤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정답> ①

주제로 '(가), 안정과 통합을 꾀하다'가 제시되어 있다. 『고려사』 사료 검색 및 분석이 방법으로 나와 있고, 사료 내용과 분석으로 '명주의 순식이 투항하자 왕씨 성을 내리다(지방 호족 포섭)',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반포하다(관리의 규범 제시)',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다(민생 안정)'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려 태조(재위 918-943)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명주(溟州) 장군 순식(順式)이 고려에 귀순한 것은 고려 태조 5년인 922년의 일이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것은 936년(태조 19)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둔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개국 공신의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시정 전시과 이전의 토지 제도이다.

오답 해설>

- ② (거란의)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한 것은 고려 정종 2년인 947년의 일이다.
- ③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려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이다. 광종 즉위년(949)부터 광종 4년(953)까지는 '광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이후 중국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광종 11년인 960년부터 다시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광종 14년인 963년에 중국 송과 국교를 연 후에는 송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자국의 연호[준풍]를 폐지하였다.
- ④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
- ⑤ 주전도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의 일이고, 해동통보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다.

11 - 12목 설치

11.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년 신하들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 낮은 곳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보고자 어질고 현명한 이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이에 수령들의 공로에 의지해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고자 한다. 『우서(虞書)』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니, 주나라가 8백 년간 지속하였듯이 우리의 국운도 길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	(나)	(다)	(라)	(마)
	918	945	1009	1196	1270
	고려	왕규의	강조의	최충헌	개경
	건국	난	정변	집권	한도
					공민왕
					즉위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년 신하들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 낮은 곳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보고자 어질고 현명한 이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수령들의 공로에 의지해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고자 한다. 『우서(虞書)』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니, 주나라가 8백 년간 지속하였듯이 우리의 국운도 길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이상을 연표에서 고르면 왕규의 난이 일어난 945년과 강조의 정변이 일어난 1009년 사이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12 -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

12.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향사입니다. (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고려 현종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왕 때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 ① 박위를 보내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 ②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 ③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④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설치하였다.
- 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를 신설하였다.

정답 > ③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향사입니다. (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고려 현종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왕 때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국가'는 곧 거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인한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의 일이다(~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다(1232, 고종 19).

(외침에 대비하여)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현종 대(재위 1009-1031, 제8대)이다[1009(현종 즉위년)~1029(현종 20)]. 강감찬(948~1031)이 건의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박위(?~1398)를 보내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한 것은 대마도[쓰시마섬]이다. 고려 창왕 원년인 1389년의 일이다. 참고로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되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이종무(1360~1425)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쓰시마섬을 다시 토벌한 것이 대표적이다.

②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한 것은 조선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이다. 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통술)과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통술) 두 차례 나선 정벌이 단행되었다.

④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대(재위 1418-1450, 제4대)이다(여진족 대비). 구체적으로는 세종 15년인 1433년부터 최윤덕(1376~1445)에 의해 4군이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이듬해인 1434년(세종 16)에는 김종서(1383~1453)에 의해 두만강 일대에 6군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4군과 6진의 개척이 완성하기까지는 이후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를 신설[처음 설치]한 것은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3포 왜란). 이후 비변사는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1555, 명종 10), 양 난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한 문무 합역의 기구이다. 비국(備局), 묘당(廟堂), 주사(籌司)라고도 불렸으며, 고종 초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 *에 혁파되었다(1865, 고종 2,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 1863년 12월에서 1873년 11월까지

13 - 대각국사 의천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정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②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 ③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④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
-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정답 > ①

'왕후(王煦),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는 제목 아래 '문종의 아들로 불법(佛法)을 구하러 송에 유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귀국 후 흥왕사에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송·거란·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후 (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의천은 국정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1097, 고려 숙종 2).

오답 해설 >

②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한 인물은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1190, 고려 명종 20).

③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한 인물은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다(1226, 고종 13). 선문염송집은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은 공안집[화두집]이다.

④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물은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다(1285, 충렬왕 11).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인물은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14 -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변

14.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이고 등이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 환관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환궁하였다.

(나)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南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보린, 최탁 등 17인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다)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그 군대를 천건충의군이라 불렀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가) - (나)

정답> ④

(가)에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이고 등이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 환관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환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정중부(1106~1179), 이의방(?~1174) 등에 의해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에 일어난 무신 정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보현원은 경기도 장단에 위치한 원(院), 즉 일종의 관원 숙소였으나 의종이 못을 만들고 놀이하는 향연 장소로 만들어 자주 거동하였다.

(나)에는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南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보린, 최탁 등 17인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자겸(?~1126)이 척준경(?~1144)과 함께 일으킨 이자겸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126, 인종 4).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의 장인인 동시에 인종의 외조부였다.

(다)에는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그 군대를 천건충의군이라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묘청(?~1135)과 서경이라는 용어 등에서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에 일어난 묘청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가 된다.

15 - 원 간섭기에 볼 수 있는 모습

15.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기철의 친척 기삼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았기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잡아 장(杖)을 치고 하옥하였는데 20여 일 만에 죽었다. 그러자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들을 잡아 가두었다.

- ①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학자
- ②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 ③ 도평의사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 ④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얼
- ⑤ 빈공과 응시를 준비하는 6두품 유학생

정답> ③

'기철의 친척 기삼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았기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잡아 장(杖)을 치고 하옥하였는데 20여 일 만에 죽었다. 그러자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 순제(재위 1333-1370, 제11대)의 명령을 받아 정치도감을 설치한 것은 충목왕 3년인 1347년의 일이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와 같이 기황후(?~?)와 기철(?~1356)의 친족인 기삼만(?~1347)이 옥사하자 도리어 원의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들을 구속하고 국문하여 정치도감의 본격적 활동은 3개월 만에 와해되고 말았다(충정왕 원년인 1349년에 정치도감 폐지). 원 간섭기*에 있었던 일이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것은 원 간섭기인 충렬왕 5년인 1279년의 일이다(관제 격하).

오답 해설>

①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한 것은 조선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② 초량 왜관에서 상인들이 교역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즉 기존의 두모포 왜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왜인들의 잦은 요청을 수용하여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에 초량 왜관이 새로 설치되었다(부산 중구 일대).

**두모포(豆毛浦) 왜관: 조선 선조 40년인 1607년 부산 두모포에 설치되었다. 부산 두모포는 현 부산 동구청이 있는 자리이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수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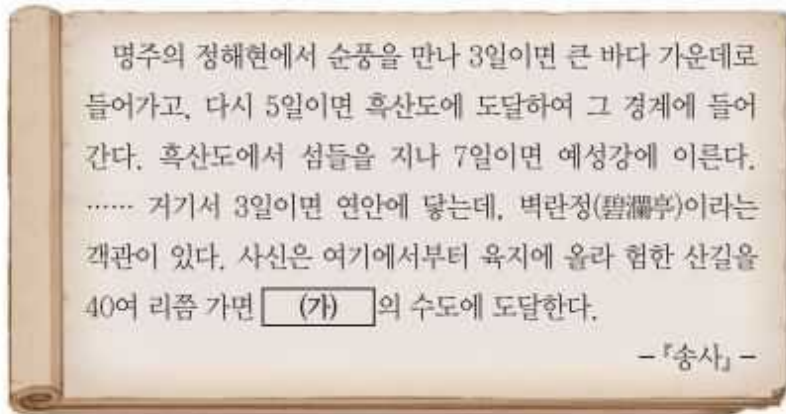
④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 학자들을 등용한 것은 조선 정조 3년인 1779년의 일이다. 이때 등용된 인물 4인은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이다.

***규장각 검서관: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월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⑤ 빈공과(賓貢科)는 당 과거제의 한 과(科)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통일 신라와 발해인들이 많이 응시하였다. 신라의 경우 특히 6두품 출신들이 많이 유학하여 응시하였다. 신라와 발해는 빈공과 합격자의 석차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16 - 고려의 경제 상황

16.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②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되었다.
- ③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 ④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일본과 교역하였다.
- 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정답> ②

'명주의 정해현에서 순풍을 만나 3일이면 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시 5일이면 흑산도에 도달하여 그 경계에 들어간다. 흑산도에서 섬들을 지나 7일이면 예성강에 이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거기서 3일이면 연안에 닿는데, 벽란정(碧瀾亭)이라는 객관이 있다. 사신은 여기에서부터 육지에 올라 험한 산길을 30여 리쯤 가면 (가)의 수도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예성강', '벽란정' 등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어진 자료는 고려 인종 원년인 1123년에 송의 사신으로 고려에 온 서공(?~?)의 사행 일정과 향로이다. 서공은 개경에 1개월간 머무르다가 귀국한 후 『(선화봉사)고려도경』(40권)을 지었다.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벽란도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었다(벽란도라는 항구의 이름이 벽란정에서 유래).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국가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③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한 국가는 신라이다(509, 신라 지증왕 10).
- ④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일본과 교역한 국가는 조선이다(1443, 세종 25). 계해약조는 조선이 대마도주와 세경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삼[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 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德大)가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17 - 예산 수덕사 대웅전

17.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①

'국보로 지정된 불교 건축물'이라는 제목 아래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이 건물은 맞배지붕에 주심포 양식입니다. 건물 보수 중 목서명*이 발견되어 충렬왕 34년이라는 정확한 건립 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예산 수덕사 대웅전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대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이다(1308, 충렬왕 34)(국보 제49호).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 주심포 양식을 갖추고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으며, 고려 시대 건축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수덕사가 삼국 시대 백제 말인 7세기 중엽에 창건되었다.

오답 해설>

- ②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조선 중기인 18세기 초에 중건된 건축물이다(1702, 숙종 28)(국보 제67호). 정면 7칸, 측면 5칸이고 중층 팔작지붕 다포집 양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 이름이 장육전(丈六殿)이었으나 숙종이 각황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액하여 각황전이라 하였다. 참고로 구례 화엄사에는 사사자 삼층 석탑, 각황전 앞 석등, 동과 서의 오층 석탑, 원통전 앞 사자탑 등의 유물이 있다.
 - ③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의 목조 건축물이다(국보 제18호)(13세기 초로 추정).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건물).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본전(本殿)으로 신라 문무왕 16년인 676년에 의상 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다.
 - ④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이다(국보 제15호)(13세기 초 내지 중반경으로 추정).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맞배지붕을 갖추고 있다.
 - 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인 17세기의 건축물로,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탑이다(국보 제55호). 정유재란 때 불에 탔는데, 인조 4년(1626)에 다시 축조하였다. 벽의 사방에 각 면 2개씩 모두 8개의 변상도(變相圖)*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법주사 안에는 석련지(국보 제64호)와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도 있다.
- *변상도: 일종의 종교화로,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18 - 위화도 회군

18.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②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③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하였다.
- ⑤ 최우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이번에 왕이 최영에게 명하여 요동을 정벌한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명 황제가 철령 이북을 일방적으로 명의 영토로 귀속시키려 한 것이 원인이라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는 명의 철령위 설치에 맞서 고려 우왕과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려 한 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성계(1335~1408)는 4불가론*을 내세워 반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이 강행되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결국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1388, 고려 우왕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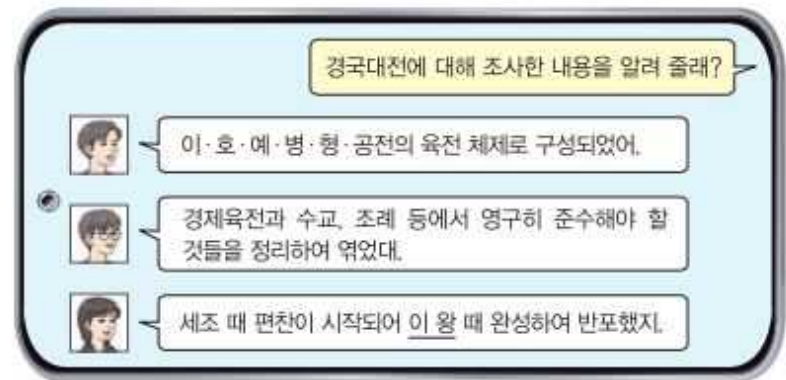
*4불가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요, 여름에 군사를 동원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요, 왜구가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것이 세 번째요, 장마철이어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질병이 들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이다."

오답 해설>

- ① 윤관(1040~1111)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물리친 후) 동북 9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 ② 문신 서희(942~998)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시).
- ④ 배중손(?~1271)이 이끄는 삼별초가 (전남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고려 원종 11년인 1270년의 일이다(진도 삼별초, 1270.6~1271.5). 배중손이 전사한 후에는 김통정(?~1273)이 삼별초를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 이끌었다(제주도 삼별초, 1271.6~1273.2).
- ⑤ 최우(집권 1219~4129)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

19 - 조선 성종 대의 사실

19.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 ②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
- ③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 ④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다.
- ⑤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정답> ③

'경국대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 줄래?'라는 질문이 나와 있고, 이어 '이·호·예·병·형·공전의 육전 체제로 구성되었어', '경제육전과 수교, 조례 등에서 영구히 준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여 엮었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이 왕 때 완성하여 반포했지'라는 대답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성종(재위 1469-1494), 제9대].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대이다. 홍문관은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였는데, 성종 9년인 1478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간원이 설치된 것은 태종 원년인 1401년의 일이다(대신 견제책).
- ② 함길도 토착 세력인 무신 이시애(?~1467)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킨 것은 세조 13년인 1467년의 일이다.
- ④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세종 8년인 1426년의 일이다. 참고로 세조 집권 초에 사가독서제가 중단되었으나 성종 때 부활하였다(1476, 성종 7).
- ⑤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20 - 조선 명종 대의 사실

20. ㉠~㉣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모후(母后)가 수렴청정을 하고, 사림 간에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요승(妖僧)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으나 모두 왕의 뜻은 아니었다. ……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으며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달프고 도적이 성행하여 국내의 재력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왕이 비록 성덕(盛德)을 품었어도 끝내 하나도 펴지 못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그러다가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게 되자 ……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람들을 풀어 주고 먼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모두 내지로 옮겼다.

- ① ㉠ -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본다.
- ② ㉡ - 황사영 백서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살펴본다.
- ③ ㉢ - 예송 논쟁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 ④ ㉣ - 갑술환국의 전개 양상을 정리한다.
- ⑤ ㉤ - 윤임 일파가 축출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정답> ⑤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모후(母后)가 수렴청정을 하고, 사림 간에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요승(妖僧)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으나 모두 왕의 뜻은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으며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달프고 도적이 성행하여 국내의 재력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왕이 비록 성덕(盛德)을 품었어도 끝내 하나도 펴지 못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그러다가 문정 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게 되자 ……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람들을 풀어 주고 먼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모두 내지로 옮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왕'은 조선의 제13대 국왕인 명종(재위 1545-156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문정 왕후(1501~1565)는 곧 중종(재위 1506-1544, 제11대)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모친]이다.

을사사화는 명종 원년인 1545년에 외척 간의 대립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때 대윤인 윤임 일파가 축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은 태조 7년인 1398년의 일이다. 정도전(1342~1398) 등이 이때 피살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일명 '방원의 난' 또는 '무인정사',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 ②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사건이다(신유박해). 참고로 자료 속 '요승'은 문정 왕후의 신임을 얻어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허응당 보우(1509~1565)를 가리킨다.
*황사영 백서 내용: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③ 예송이 발생한 것은 조선 현종 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 ④ 갑술환국이 일어난 것은 숙종 20년인 1694년의 일이다. 이때 인현 왕후(1667~1701)가 복위하고 장희빈(1659~1701)이 축출되었다.

21 - 계유정난

21.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1점]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삼문 등이 상왕(上王)도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왕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① 인조반정으로 복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 ②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 ③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정답> ③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삼문 등이 상왕(上王)도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왕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성삼문(1418~1456) 등이 상왕인 단종(재위 1452-1455, 제6대)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456, 세조 2)(사육신).

단종이 수양대군(1417~1468)(이후 세조)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역지로 상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종 원년인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이었다(1453.10.10).

오답 해설>

- ① 인조반정으로 복인 세력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광해군 15년인 1623년의 일이다. 이귀, 김유 등 서인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 이종(1595~1649)을 왕위(인조, 재위 1623-1649, 제16대)에 앉혔다.
- ② 인현 왕후(1667~1701)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것은 숙종 15년인 1689년에 일어난 기사환국 때의 일이다.
- ④ 이인좌(1695~1728)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영조 4년인 1728년의 일이다(이인좌의 난, 무신란).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한훤당 김굉필(1454~1504) 등(의 사림)이 처형된 것은 연산군 10년인 1504년의 일이다(갑자사화). 참고로 김굉필은 김종직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특히 『소학(小學)』에 심취하여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칭한 적이 있을 만큼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이다(문묘 배향).

22 - 몽유도원도

22.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①
'조선의 예술, 메타버스 회화 전시관'이라는 제목 아래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몽유도원도임을 알 수 있다(1447, 세종 29).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산수화로,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1418~1453)이 꿈에서 본 이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안견(?)에게 그렸던 것이다(1447, 세종 29).

오답 해설>

②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이다(1844, 헌종 10).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유배가기 전이나 유배간 뒤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의리로 대하는 이상적(1804~1865)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그려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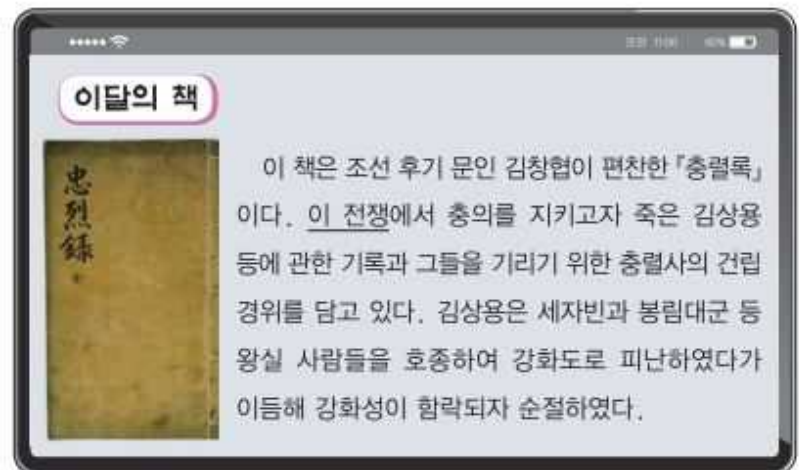
③ 단원 김홍도(1745~의 옥순봉도이다(1796, 정조 20)(『병진년화첩』). 충북 단양의 명승인 옥순봉을 그린 것이다. 옥순봉은 이항 이후 많은 선비들이 방문하여 글과 시를 짓고, 18세기 이후에는 자주 그림으로 표현된 곳이다. 현재는 단양팔경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 시대에는 '사군산수(四郡山水)'로 손꼽히던 곳이다. 사군은 단양, 제천, 청풍, 영춘 네 곳이며 이곳에 위치한 옥순봉, 도담 삼봉, 구담, 사인암, 삼선암, 의림지, 청풍의 금병산과 한벽루 등이 명승으로 꼽혔다. 참고로 김홍도는 1791년 12월부터 1793년 5월까지 충청도 연풍 현감으로 재직할 적이 있다.

④ 인재 강희안(1417~1464)의 고사관수도이다(조선 전기). 산수인물화로, 깎아지른 물가의 벼랑 아래 널찍한 바위에 몸을 기댄 채 흐르는 물을 바라다보는 선비의 모습을 그렸다.

⑤ 겸재 정선(1676~1756)의 인왕제색도이다. 인왕제색도는 '금강전도'와 함께 정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1751년작, 황혼에 접어든 일흔 여섯의 나이에 완성).

23 - 병자호란

23.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②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 ③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④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 ⑤ 광재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정답> ③

'이 책은 조선 후기 문인 김창협이 편찬한 『충렬록』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전쟁에서 충의를 지키고자 죽은 김상용 등에 관한 기록과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의 건립 경위를 담고 있다. 김상용은 세자빈과 봉림대군 등 왕실 사람들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전쟁'은 인조 14년인 1636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강도순절인(江都殉絶人)*을 기록한 『(강도)충렬록』을 농암 김창협(1651~1708)이 편찬한 것은 숙종 27년인 1701년의 일이다. 김창협은 문충공 선원(풍계) 김상용(1561~1637)의 종증손이기도 하다. 우의정 출신의 문신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은 병자호란 때인 1638년(인조 16) 1월의 일이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이듬해인 1638년 1월 청군에 의해 성이 함락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이때 김상용의 죽음이 스스로 분신한 것이 아니라 실화(失火) 때문이라는 이설도 있다.

*강도순절인(江都殉絶人): 청군에 의해 강화도[강화성]가 함락할 때 순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당시 전라도 병마절도사였던 김준룡(1586~1642)은 근왕병을 이끌고 청군에게 포위당한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던 중 용인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1637.1.29~31). 이때 김준룡은 청의 장수 공경(孔耿)의 부대와 싸워 청태조의 사위 백양고라(白羊高羅)를 포함한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오답 해설>

①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1593년 1월의 일이다(평양성 탈환)임진왜란(1592.4~1598.11), 정유재란 포함].

② 5도 도원수 강홍립(1560~1627)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 3월의 일이다.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이 후금(청)의 군대가 만주의 사르후에서 맞서 싸운 전투로 조·명 연합군이 대패하였다. 이후 명청 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1619.3.1~4).

④ 김종서(1383~1453)가 두만강 일대에 6군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16년인 1434년부터이다. 그리고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는 이미 그 전 해인 1433년(세종 15)부터 최윤덕(1376~1445)에 의해 4군이 개척되고 있었다. 4군과 6진의 개척이 완성하기까지는 이후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⑤ (홍의장군으로 불린) 충익공 망우당 광재우(1552~1617), 문열공 김천일(1537~1593)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광재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에 제일 먼저 경남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김천일은 전남 나주에서 같은 해 5월에 의병을 일으켰다.

24 - 조선 정조(신해통공)


24.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시는 (가)이/가 현릉원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길에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정신성*의 그리움 다할 길 없어
오늘 또 화성에 와 보니
곳은 비는 침원에 부슬부슬 내리고
이 마음은 재전**을 끝없이 배회하누나
어찌하여 사흘 밤을 잤던고
아버님 영정을 모셨기 때문일세
더디고 더딘 걸음에 고개 들어 바라보니
오운이 저 멀리서 일어나누나

*혼정신성: 부모님께 효도하는 도리
**재전: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 ①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②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③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 ④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정답> ⑤

'이 시는 (가)이/가 현릉원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길에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인 사도 세자에 대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혼정신성*의 그리움 다할 길 없어/오늘 또 화성에 와 보니/곳은 비는 침원에 부슬부슬 내리고/이 마음은 재전**을 끝없이 배회하누나/어찌하려 사흘 밤을 잤던고/아버님 영정을 모셨기 때문일세/더디고 더딘 걸음에 고개 들어 바라보니/오운이 저 멀리서 일어나누나'는 시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재위 19년이 되는 1795년 윤2월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1735~1816)을 모시고 수원 화성에 행차하여 사도 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참배하고 어머니의 회갑연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8일 간의 을묘년 화성 원행).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로 기록하였다.

*혼정신성(昏定晨省): 부모님께 효도하는 도리('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재전(齋殿): (능이나 종묘 등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것은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 ② 통치 체도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한 것은 영조 22년인 1746년의 일이다.
- ③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에서 고종 5년인 1868년까지의 일이다.
- ④ (진주 농민 봉기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

25 - 대동법

25.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가)을/를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 맨 먼저 경기도 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니 백성들은 대부분 편리하게 여겼다. 다만 권세가와 부호들은 방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였다.

-「국조보감」-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 ② 수신전과 홀양전을 폐지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 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⑤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가)을/를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맨 먼저 경기도 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니 백성들은 대부분 편리하게 여겼다. 다만 권세가와 부호들은 방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시행된 대동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1608~1708)(공납의 전세화).

대동법의 시행으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것은 호포제[호포법]이다. 양반과 상민(평민)의 구분 없이 호(戶)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였다. 조선 후기에 시행 여부를 계속 논의되었으나 양반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시행되었다.
- ② 수신전과 홀양전을 폐지한 것은 세조 12년인 1466년에 시행한 직전법이다. 직전법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地契)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다(1899~1903)(광무개혁).
-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한 것은 공법[연분9등법] 시행 시이다(1444, 세종 26).

26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전투

26.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좌의정 박은이 상왕(上王)에게 아뢰기를, "이제 왜구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곧 이때이므로 마땅히 이종무 등으로 대마도에 나가 적이 섬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맞아서 치게 되면 적을 파함에 틀림없을 것이니, 진멸(殄滅)시킬 기회를 잃지 마소서."라고 하니, 상왕이 옳게 여겼다.

(나) 김방경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흥다구와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천여 명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다. 왜인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마치 삼대와 같았다. 날이 저물어 이내 공격을 늦추었는데 마침 밤에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많이 부서졌다.

(다) 왜구가 배 5백 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여러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배들을 불태웠다.

(라) 왜장이 군사 수만 명을 모두 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성 안의 군사는 3천여 명이였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여러 성첩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 10여 일 동안 4~5차례 큰 전투를 벌이면서 안팎에서 힘껏 싸웠으므로 적이 먼저 도망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④

(가)에 '좌의정 박은이 상왕(上王)에게 아뢰기를, 이제 왜구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곧 이때이므로 마땅히 이종무 등으로 대마도에 나가 적이 섬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맞아서 치게 되면 적을 파함에 틀림없을 것이니, 진멸(殄滅)*시킬 기회를 잃지 마소서'라고 하니, 상왕이 옳게 여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신 이종무(1360~1425)가 대마도, 즉 쓰시마섬을 토벌한 것은 조선 세종 원년인 1419년의 일이다. 여기서 '상왕'은 태종(재위 1400-1418)을 가리킨다.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종무의 일과 고려 창왕 원년인 1389년에 박위(?~1398)가 정벌한 것을 들 수 있다.

*진멸(殄滅):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앴.

(나)에는 '김방경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흥다구와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천여 명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다. 왜인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마치 삼대와 같았다. 날이 저물어 이내 공격을 늦추었는데 마침 밤에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많이 부서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무신 김방경(1212~1300)이 중군장으로 몽골군과 함께 일본 원정에 나선 것은 고려 충렬왕 즉위년인 1274년의 일이다(제1차 일본 원정). 참고로 충렬왕 7년(1281)에 있었던 2차 일본 원정에서 김방경은 고려군 도원수의 자격으로 중군하였다(두 차례의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모두 실패).

(다)에는 '왜구가 배 5백 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여러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배들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우왕 3년인 1380년 8월에 있었던 '진포 대첩[해전]'을 가리킨다.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라)에는 '왜장이 군사 수만 명을 모두 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성 안의 군사는 3천여 명이였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여러 성첩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 10여 일 동안 4~5차례 큰 전투를 벌이면서 안팎에서 힘껏 싸웠으므로 적이 먼저 도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충무공(시호) 김시민(1554~1592)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 속 전투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선조 25) 10월(음력)에 있었던 진주(성) 대첩[제1차]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592.11.9(양력)/10.6(음력)](진주 목사 김시민 전사). 이듬해인 1593년 6월(음력)에 2차 진주(성) 대첩이 벌어졌다[1593.7.19~27(양력)/6.21~29(음력)](경상우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진주 목사 서예원, 창의사 김천일 등, 조선 측 지휘관 모두 전사).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라)'가 된다.

27 - 성호 이익(한전론)

27.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마과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 ②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③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④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 ⑤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성호사설에서 6가지 좀의 하나로 과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요즈음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 부모 형제와 생업도 팽개치고 종일토록 글공부만 하고 있으니, 이는 인간의 본성을 망치는 재주일 뿐입니다. 다행히 급제라도 하면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져, 끝없이 백성의 것을 빼앗아 그 욕심을 채웁니다. 때문에 나라를 좀먹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1681~176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성호사설에서 사화 폐단으로 6가지 좀으로 규정한 것은 노비 제도, 과거 제도[과업], 양반 문벌 제도[벌열], 사치와 미신[기교], 승려[승니], 게으름뱅이이다(1740년경).

광우록에서 토지[영업전]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한 인물 역시 성호 이익이다.

오답 해설>

- ① 마과회통에서 홍역(과 천연두)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798, 정조 22). 당시에는 홍역을 마진(麻疹)이라 하였다.
- ②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 ③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영재 유득공(1748~1807)이다(1784, 조선 정조 8).
- ⑤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1852, 철종 3).

28 -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28.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주자소에서 재미자를 만드는 장인
- ②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공연하는 광대
- ③ 대규모 자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도고
- ④ 시사를 조직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인
- ⑤ 인삼,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정답> ①

'범 내려온다 ♪ 범이 내려온다 ♪ / 송림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 ♪'와 함께 왼쪽 말풍선에 '내가 준비한 것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장면이야'와 '한글 소설과 함께 판소리는 이 시기에 유행했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판소리는 신재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신재효(1812~1884)는 전북 고창의 향리 출신으로 그가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한 것은 향리의 직책에서 물러난 1860년 이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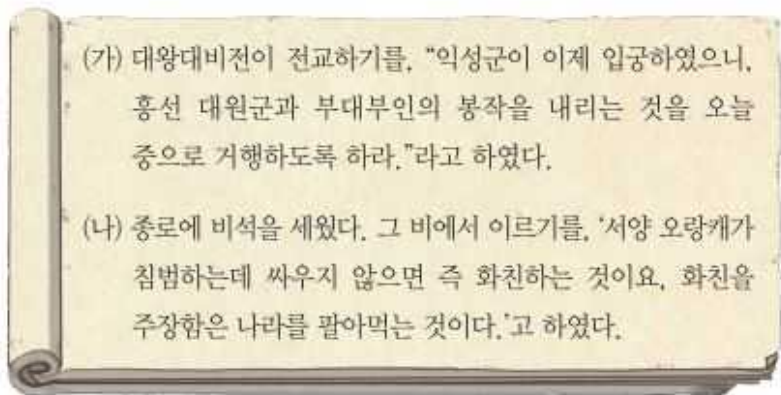
주자소에서 재미자가 만들어진 것은 조선 태종 3년인 1403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송파장에서 산대놀이가 공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산대놀이는 조선 후기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경기도에서 공연된 가면극으로, 송파 산대놀이는 현재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1973년). 또 송파장은 서울 송파, 정확하게는 지금의 서울 송파동이 아니고 한강변 언덕 위에 있던 구(舊)송파진(송파나루)으로, 석촌 호수 부근에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5일장이었으나 점차 거리가 늘어나면서 상설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 ③ 대규모 자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都庫)가 등장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인이 있었던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인삼,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29 -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

29.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② 일본의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③ 러시아가 용암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④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⑤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푸트 공사를 파견하였다.

정답> ④

(가)에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흥선 대원군과 부대부인의 봉작을 내리는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철종이 승하하고 익성군(翼成君)이었던 고종이 왕위에 오른 1863년(고종 즉위년) 12월의 일이다[즉 흥선 대원군이 섭정의 대권을 받는 것과 관련된 사료임]. 여기서 대왕대비는 곧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왕비이자 제24대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 왕후 조씨(1808~1890)[이른바 '조대비']이며, 흥선 대원군의 봉작을 받은 인물은 말 그대로 흥선 대원군이 된 석파 이하응(1820~1898), 부대부인의 봉작을 받은 이는 흥선 대원군의 부인인 여흥부대부인 민씨(1818~1898)를 가리킨다. 아이러니한 것은 흥선 대원군이 집권 시 천주교를 탄압했는데 그의 부인인 여흥부대부인 민씨가 천주교[가톨릭] 신자였다는 점이다(1896년에 영세 받음).

(나)에는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에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미양요를 계기로 서울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건립된 척화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종 8년인 1871년 5월].

독일 상인[독일계 유대 상인] 오페르트(1832~1903)가 흥선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1788~1836) 묘 도굴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른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거문도 사건).
- ②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일본의 포함 외교). 강화도 조약 체결의 빌미가 되었다.
- ③ 러시아가 용암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한 것은 1903년 7월의 일이다(1903년 4월에 용암포와 압록강 하구 점령). 용암포는 평안북도 용천의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하항[부두]이다.
- ⑤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푸트 공사(1826~1913)를 파견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4월의 일이다. 이에 대한 답례로 고종은 같은 해 7월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였다(~1884.5). 참고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 5월에 체결되었으며, 푸트 공사는 이듬해인 1884년 7월에 미국 정부가 조선 주재 전권 공사를 변리공사 겸 총영사로 강등시키자 사임하였다.

30 - 임오군란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 ②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 ④ 흥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⑤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동대문 일대 재개발 당시 발견된 하도감* 터 사진이군요.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장소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여기는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장소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작했던 곳입니다. 1881년부터 이듬해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가) 때까지 교련병대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1882.7).

*하도감(下都監): 조선 후기 오군영의 하나인 훈련도감에 속한 부속 관청이다. 훈련도감은 본청 이외에 서용, 남영, 북영 등과 하도감, 염초청 등을 부속 관청으로 두었다.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다. 임오군란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제물포 조약이 맺어졌는데 그 안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다(1882.8).

오답 해설>

- ①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한 것으로는 독립 협회의 자강 개혁 운동을 들 수 있다(관민 공동회 활동, 1898.10, 헌의 6조 채택). 임오군란에서는 입헌 군주제 수립과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다. 참고로 이후 애국 계몽 운동 단체 중에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헌정 연구회가 있다(1905.5).
- ②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한 것은 무수히 많아 특정하기 어렵다. 이전에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해 이 선지가 틀린 선지 중 하나로 제시된 적이 있다[국채 보상 운동이 실패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 때문(1907.2~1908.7)].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것은 한일 병탄 직후인 1910년 10월 1일의 일이다.
-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것은 급진 개화파에 의해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양력]에 발생한 갑신정변이다 [1884.10.17~19(음력)/1884.12.4~6(양력)].
- ④ 흥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의 일이다(1895.1.7). 제2차 갑오개혁을 이끄는 방침이 되었다(1894.12~1895.8).

31 - 동학 농민 운동

3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복합 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 라던 국왕의 약속과 달리 관리들의 침학이 날로 심해졌다. …… 최시형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제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보은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동학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 황토현에 진을 쳤다. 관군은 밀고 들어가 그 아래에 진을 쳤다. …… 농민군이 삼면을 포위한 채 한쪽 모퉁이만 빼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

- ①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 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 ③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북공을 점령하였다.
- ④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 ⑤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정답> ④

(가)에 '복합 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라던 국왕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들의 침학이 날로 심해졌다. …… 최시형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제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보은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동학 교조 최제우(1824~1864)에 대한 신원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 복합 상소가 있었던 것은 1893년(고종 30) 2월의 일이다. 이어 보은 집회가 개최된 것은 다음 달인 1893년 3월의 일이다(보은 취회). 참고로 이때 8명의 대접주가 탄생[임명]하였다

(나)에는 '동학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 황토현에 진을 쳤다. 관군은 밀고 들어가 그 아래에 진을 쳤다. …… 농민군이 삼면을 포위한 채 한쪽 모퉁이만 빼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동학 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격파한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것은 1894년(고종 31) 4월 7일(이하 음력)의 일이다(1894.4.6~4.7)(정읍 관아 점령). 동학 농민군은 2주여 일 뒤에는 장성 황룡촌에서 중앙 경군까지 격파한 후(황룡촌 전투)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각 1894.4.23/1894.4.27)(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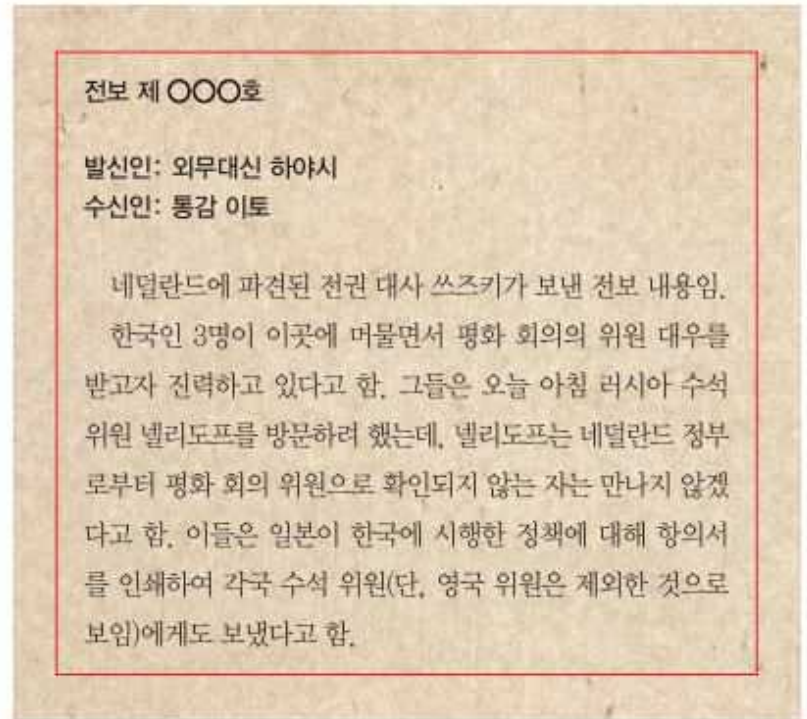
고부(지금의 전북 정읍)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만석보를 파괴한 것은 고부 농민 봉기 때의 일이다(1894.1.10).

오답 해설>

- ① (전북 완주 삼례에서 충남)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한 것은 1894년 10월의 일이다(1894.10.12). 참고로 9월 8일에 남접 지도자 전봉준과 김개남이 전북 김제 금구 원평에서 2차 기포를 결정하고 삼례에 집결할 것을 통문하였으며, 동학 교조 최시형이 9월 18일에 최종 무력 봉기를 선언하였다(동학 농민군 제2차 봉기).
- ②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된 것은 1894년 6월 11일의 일이다. 같은 해 6월 21일 일본군이 경북공을 점령하고 이어 6월 25일에 (일본의 강요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③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북공을 점령한 것은 1894년 6월 21일(양력으로는 7월 23일)의 일이다(일본군의 경북공 점령 사건).
- ⑤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한 것은 1894년 11월 12일의 일이다(11월 9일부터 전투 시작)(공주 우금치 전투).

32 - 헤이그 특사 사건

32.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정답> ⑤

전보의 발신인이 '외무대신 하야시'이고, 수신인이 '통감 이토'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 파견된 전권 대사 쓰즈키가 보낸 전보 내용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 회의의 위원 대우를 받고자 진력하고 있다고 함. 그들은 오늘 아침 러시아 수석 위원 넬리도프를 방문하려 했는데, 넬리도프는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평화 회의 위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함. 이들은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정책에 대해 항의서를 인쇄하여 각국 수석 위원(단, 영국 위원은 제외한 것으로 보임)에게도 보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 고종이 을사늑약 강요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 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헤이그 특사 사건)[고종이 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1907년 4월, 헤이그 회의가 개최된 것은 6월 15일(~10월 18일까지 개최)]. 이상설, 이준, 이위종 3인의 특사가 헤이그에 도착한 것은 회의가 이미 시작된 직후인 6월 25일이며, 특사들은 7월까지 활동하였다(7월 14일 이준 열사 순국). 그리고 참고로 자료 속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이며, 외무대신은 하야시 다다스이다(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을 강요한 하야시 곤스케 주한 공사와 구분).

이상에서 주어진 자료가 작성된 시기는 헤이그 특사가 도착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1907년 6월 말경이므로, 연표에서는 1904년 러일 전쟁과 1910년 국권 피탈 사이인 '(마)' 시기에 해당한다.

33 - 13도 창의군

33. 다음 의병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 각 도에 격문을 전하니 전국에서 불철주야 달려온 지원자들이 만여 명이더라. 이에 서울로 진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먼저 이인영은 심복을 보내 각국 영사에게 진군의 이유를 상세히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각 도의 의병으로 하여금 일제히 진군하게 하였다.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 ②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③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 ④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 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되었다.

정답> 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 각 도에 격문을 전하니 전국에서 불철주야 달려온 지원자들이 만여 명이더라. 이에 서울로 진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먼저 이인영은 심복을 보내 각국 영사에게 진군의 이유를 상세히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각 도의 의병으로 하여금 일제히 진군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가리키는 의병 부대는 1907년 12월에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된 13도 창의군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7.12.6).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진소로 편성). 이듬해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13도 창의군은 그 해 7월과 8월에 있었던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 제국)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다(1919.11). 단재 신채호(1880~1936)에 의해 작성된 조선 혁명 선언이 중국 상하이에서 1923년 1월에 발표되었다.
- ② 이만손(1811~1891) 등의 주도로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는) 영남만인소를 올린 것은 1881년(고종 18) 2월의 일이다(위정척사 운동의 하나인 1880년대의 개화 반대 운동).
- ③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한 단체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비밀리에 조직된 대한 광복회이다(~1918.1). 대한 광복회는 대구의 상덕태상화, 경북 영주의 대동상회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의 곡물상, 잡화상을 연락 거점으로 삼아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 부호의 처단, 독립군 양성 등의 활동을 펼쳤다.
- ④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한 단체는 돈헌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 9월 조직한 (대한) 독립 의군부이다(~1913.5).

34 - 대한민국 국제 반포

34.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곳 유리창과 분칠한 담장은 화려하지만 그을음 나는 석탄을 때는 전돌(甄堞)은 옥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온 나라 신하들의 심정을 염두에 두시어 간하는 말을 따라 바로 환궁하여 끓어오르는 여론에 부응하시고 영원히 누릴 태평의 터전을 공고히 만드소서.

- ①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 ②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 ③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 ④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 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정답> ③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곳 유리창과 분칠한 담장은 화려하지만, 그을음 나는 석탄을 때는 전돌(甄堞)*은 옥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온 나라 신하들의 심정을 염두에 두시어 간하는 말을 따라 바로 환궁하여 끓어오르는 여론에 부응하시고 영원히 누릴 태평의 터전을 공고히 만드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다'는 부분, '환궁하여'라는 부분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종의 아관 파천(1896.2.11) 후 환궁을 요구하는 전국 유생들의 상소들[환궁 여론]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정확하게는 '1897년 2월 11일 종 1품 조병식 등이 올린 상소', 고종실록(당시 독립 협회도 환궁 요구 여론에 가세). 이에 고종은 결국 파천 1년만인 1897년(고종 34) 2월에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왔다(1895.2.20).

*전돌(甄堞): 쉽게 말해 구워 만든 검정색 벽돌을 가리킨다(전통 벽돌). 담장이나 성곽, 굴뚝 등 전통 건물의 자재로 사용되었다. 정사각의 네모난 방전과 방전보다 작은 장방형 전벽돌 등의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된 것은 고종 36년이자 광무 3년인 1899년 8월의 일이다(1899.8.17).

오답 해설>

- ① 온건 개화파인 윤양 김윤식(1835~1922)을 영선사로 청에 파견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9월의 일이다(~1882.11). 이듬해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었다(1883.3).
- ② 일본의 강요로 교정청을 폐쇄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것은 1894년(고종 31) 6월의 일이다(1894.6.25). 이후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끄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역할하였다(~1894.12.17).
- ④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의 일이다(1866.7.21).
- 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것은 고종 19년인 1882년 8월의 일이다.

35 -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

35.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가) - (나)

정답> ①

주제로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이 나와 있고 맨왼쪽에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창립되었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보안회가 조직되었어요'라는 말이,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금주, 금연 등을 통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 황국 중앙 총상회가 창립된 것은 광무 2년이자 고종 35년인 1898년 7월의 일이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보안회가 조직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그리고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07년 2월의 일이다 (~1908.7).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가 된다.

36 - 독립 협회

3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 ②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③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④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태극서관을 운영하여 계몽 서적 등을 보급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가)의 주요 간부인 이상재, 정교 등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밝히려는 글이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신문 기사에는 '듣기에 절영도에 러시아 사람이 석탄고를 건축하려고 땅을 청구한다고 하니 러시아 사람의 요청대로 빌려줄 건지, 잠깐만 빌려줄 건지, 영영 줄 건지, 빌려줄 때에는 정부 회의를 거치는지, 홀로 결정하여 도장을 찍는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목으로)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를 조차*해 줄 것을 요구(1897.7)한 것에 대해 독립 협회가 이를 저지한 사건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1898.2).

*조차(組借):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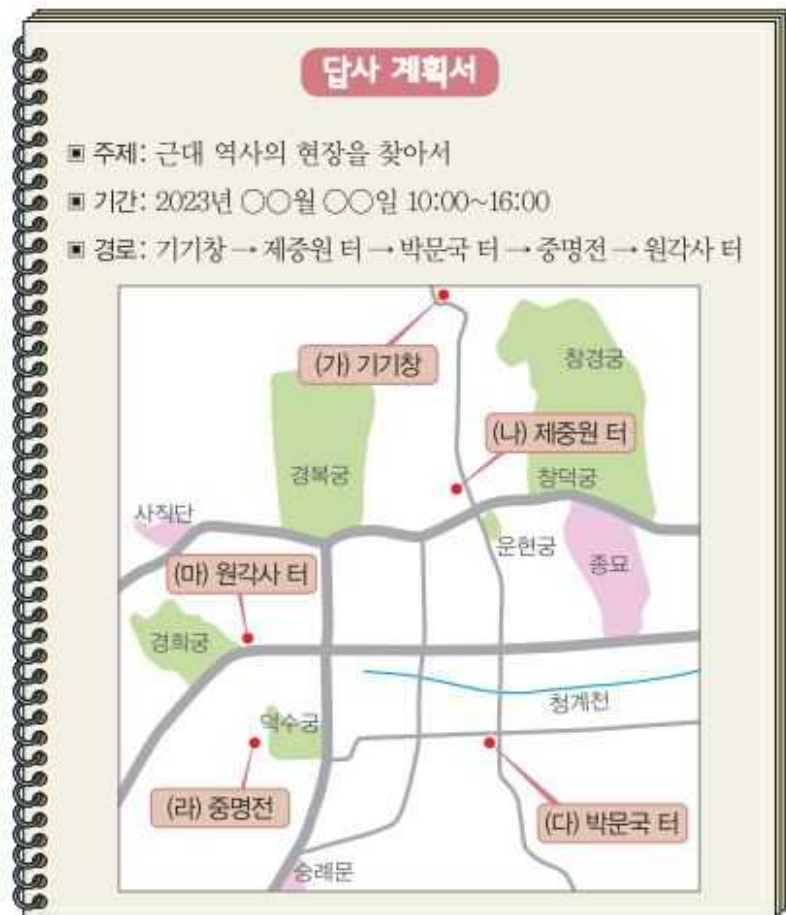
독립 협회는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 협회는 1898년[고종 35(광무 2)] 10월에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한 바 있다(1898.10.29). 이로써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마음을 바꾼 고종의 갑작스런 독립 협회 해산 명령으로 좌절되었다 [1898.12.25(민회 금지령)].

오답 해설>

- ① 정우회 선언(1926.11.15)의 영향으로 결성된 단체는 신간회이다(1927.2.15).
- ②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단체는 천도교이다(1906.6). 기관지인 만세보를 통해 천도교는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④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전개한 단체도 천도교, 정확하게는 천도교 소년회이다(1923.5). 잡지 어린이도 간행하였다(1923.3).
- ⑤ 태극서관을 운영하여 계몽 서적 등을 보급한 단체는 신민회이다(1907.4~1911.9). 신민회는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서울, 평양, 대구에서)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1908.5).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한 단체이다(1907.4~1911.9).

37 - 서울 근대 역사의 현장

3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간행되었다.
- ② (나) -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이다.
- ③ (다) - 백동화가 주도되었다.
- ④ (라) -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 ⑤ (마) - 나운규의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곳이다.

정답> ④

'근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가 주제로 나와 있다. 답사 경로로는 '기기창 → 세종원 터 → 박문국 터 → 중명전 → 원각사 터'가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지도에 위치 표시).

을사늑약이 (체결이 아니라) 강요된 곳은 덕수궁 중명전이다 (1905.11.17).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간행된 곳은 1883년(고종 20) 8월(음력)에 세워진 박문국이다(같은 해 음력 10월에 한성순보 간행). 통리아문 소속 박문국은 당시 저동, 지금의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에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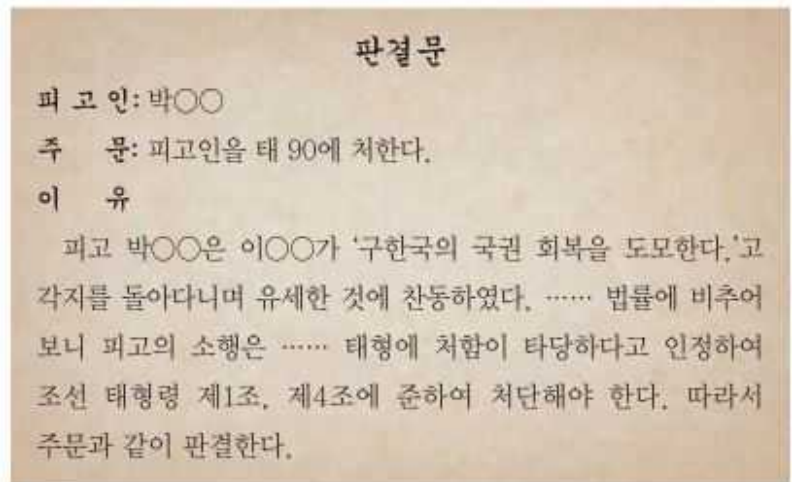
②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는 환구단[원구단]이다 [1897(광무 원년).10.12]. 환구단은 지금의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하였다. 환구단 조성 2년 후인 1899년(광무 4)에 8각 모양의 3층 지붕인 황궁우가 조성되고, 여기에 신위판(神位版)을 모셨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모두 철거되었다가 지금은 황궁우만 복원되어 있다.

③ 백동화가 주도된 곳은 전환국이다[1883(고종 20).7]. 백동화가 전환국에서 발행된 것은 조선 고종 29년인 1892년의 일이다. 액면가 2전 5분의 동전이다. 전환국은 제1차 한일 협약(1904.8)으로 들어온 일본인 재정 고문[탁지부 고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04년 11월 폐지되었다(백동화 주도도 정지).

⑤ 나운규(1902~1937)의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곳은 서울의 단성사이다(1926.10). 단성사는 서울 종로구 묘동에 위치하였다 (1907.6).

38 -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

38.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 ②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 ③ 치안 유지법이 적용되었다.
- ④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었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정답> ④

판결문이 제시되어 있다. 주문에 '피고인을 태 90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유로는 '피고 박○○은 이○○가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한 것에 찬동하였다. ...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은 ... 태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선 태형령 제1조, 제4조에 준하여 처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부터의 일이다(~1920.3).

일제가 헌병 경찰제*를 실시한 것은 1910년대이다. 일제는 1910년대 내내 헌병 경찰을 기반으로 한 무단 통치 정책을 펼쳤다

*헌병 경찰제: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탄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紮)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 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오답 해설>

① 원수부는 대한 제국 때 설치된 황제 직속의 최고 군 통수 기관이다(1899.6~1904.9).

②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된 것은 1927년 2월의 일이다(1927.2.15~1931.5.15-16).

③ 일제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 12월의 일이다 (1945년 8월 일제 패망까지 지속).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대한 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된 식민지 착취 기관이다.

39 - 한국 교육의 역사

39. ㉠~㉣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역사 돋보기 **한국 교육의 역사**

삼국 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때 교재는 유학 경전과 역사서가 중심이었다.

고려 시대에 와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조상의 음덕을 입은 관직 진출도 있었지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학인 국자감 못지 않게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의 교육 기관은 ㉢관학으로 성균관·향교 등이 있었고, 사학으로 서원 등이 있었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성리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통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19세기 말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교육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필요에서 학교를 설치하였다.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는 각종 관립 학교가 세워져 교육을 담당하였다. 한편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 문화를 보급하려고 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 ① ㉠ - 태학의 설립 취지를 찾아본다.
- ② ㉡ - 9재 학당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다.
- ③ ㉢ - 명륜당과 대성전의 기능을 알아본다.
- ④ ㉣ - 동문학과 육영 공원의 운영 목적을 분석한다.
- ⑤ ㉣ - 배재 학당, 이화 학당의 설립 시기를 파악한다.

정답> ⑤

'한국 교육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삼국 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때 교재는 유학 경전과 역사서가 중심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려 시대에 와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조상의 음덕을 입은 관직 진출도 있었지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학인 국자감 못지 않게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의 교육 기관은 관학으로 성균관·향교 등이 있었고, 사학으로 서원 등이 있었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성리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통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말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교육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필요에서 학교를 설치하였다.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는 각종 관립 학교가 세워져 교육을 담당하였다. 한편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 문화를 보급하려고 학교 설립에 앞장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2월의 일이다(1895.2.2). 그런데 배재 학당이 세워진 것은 1885년 8월이고, 이화 학당이 세워진 것은 1886년 5월로 둘 모두 교육입국 조서 반포 이전이다. 참고로 배재 학당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고, 이화 학당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스트랜튼(여)(1832~1909)이 세운 초·중·고등 과정의 사립 학교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이다.

오답 해설>

- ① 태학은 고구려의 국립 교육 기관으로 기록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이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에 처음으로 세워졌고 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백제의 박사 제도와 신라의 국학과 함께 삼국 시대에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 교육 기관이었다.
- ② 최충(984~1068)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의 일이다. 최충의 9재 학당이 처음 문을 열어 유학 교육에 힘쓴 것은 고려 문종 9년인 1055년이고, 이후 이를 본받은 사학 12도가 형성되었다(이중 11개가 도읍인 개경에 설치).
- ③ 명륜당은 강학 공간이고, 대성전은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제향 공간[전각, 건축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를 중앙에 모시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 4성(聖)을 좌우에, 또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모셨다. 대성전은 일명 '공자묘, 즉 문묘의 정전'이다. 성균관과 향교에 모두 설치되었으며 학생들은 대성전의 공자 신위에 먼저 술을 올린 후, 명륜당에 가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 ④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8월의 일이다(통번 학교). 최초의 관립 외국어 학교이다. 1886년(고종 23) 9월에 육영 공원이 세워진 후 문을 닫았다. 육영 공원은 근대적 공립 학교로 선발 인원은 35명이고, 지원 자격은 좌원의 경우 '7품 이하 젊은 현직 관리', 우원의 경우 '15~20세의 양반 자제'였다(1886.9~1894.1). 영어, 수학, 자연과학 등을 교과목으로 하였으며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의 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40 -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창립

40.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국어[일본어]를 상용(常用)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 여학교령에 의한다.
 제3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세 이상으로 한다.

- ① 서당 규칙이 제정되었다.
- ② 2·8 독립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 ④ 조선 여자 교육회가 조직되었다.
- ⑤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정답> ⑤

제1조에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에는 '국어[일본어]를 상용(常用)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 여학교령에 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3조에는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에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한 것 등으로 보아 주어진 법령은 제2차 조선 교육령임을 알 수 있다(1922.2). 제2차 조선 교육령은 제3차 조선 교육령이 제정되는 1938년 3월까지 적용되었다.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2년 11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23년 3월에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발기 [창립] 총회가 열렸다(민립 대학 설립 운동).

오답 해설>

- ① 일제가 서당 규칙을 제정하여 우리 민족의 '개량 서당 설립 운동'을 방해한 것은 1918년 2월의 일이다(1918.2.21). 서당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반일적인 서당의 설립을 막으려 하였다.
- ② 일본 도쿄 유학생들에 의해 2·8 독립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19년 2월의 일이다.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를 주도하였다(1918.12). 조선인 유학생들은 이후인 2월 12일, 2월 28일에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 행진을 시도하였다.
- ③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최두선, 임경재, 권덕규, 장지영 등이 우리말의 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학술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를 결성한 것은 1921년 12월의 일이다(1921.12.3)(서울 휘문의숙). 조선어 연구회는 이후 1931년 11월에 조선어 학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 ④ 조선 여자 교육회는 차미리사(1880~1955) 주도로 설립된 여성 계몽 교육 단체이다(1920.3). 야학과 전국 순회 강연회를 통해 여성 계몽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글과 신생활 정신 부여). 오늘날 덕성여자고등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41 - 대한민국 임시 정부

41. (가) 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도내 관공서의 조선인 관리·기타 조선인 부호 등에게 빈번하게 불온 문서를 배부하는 자가 있어서 수사한 결과 이○○의 소행으로 판명되어 그의 체포에 노력하고 있다. …… 그는 (가)의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 조선에 돌아가서 인쇄물을 뿌리는 등 인심을 교란하는 동시에 (가)이/가 발행한 독립 공채를 판매하는 한편, 조선 내부와의 연락 및 기타 기관을 충분히 갖추게 하는 것 등이었다.

- 「고등 경찰 요사」 -

- ① 무장 투쟁을 위해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 ②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 ③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 ④ 외교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⑤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④

'도내 관공서의 조선인 관리·기타 조선인 부호 등에게 빈번하게 불온 문서를 배부하는 자가 있어서 수사한 결과 이○○의 소행으로 판명되어 그의 체포에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가)의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 조선에 돌아가서 인쇄물을 뿌리는 등 인심을 교란하는 동시에 (가)이/가 발행한 독립 공채를 판매하는 한편, 조선 내부와의 연락 및 기타 기관을 충분히 갖추게 하는 것 등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독립 공채를 판매', '조선 내부와의 연락' 등의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와의 통신 연락을 위해 만주 안동 [중국명 단둥]에 위치한 무역 선박 회사인 이룡양행[아일랜드인 조지 루이스 쇼(1880~1943) 경영]에 교통국을 설치하였다(1919.5)(이후 7월부터 연통제 실시). 그리고 1919년 11월부터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 위원부를 미국 워싱턴에 설치하였다(1919.9).

오답 해설>

- ① 무장 투쟁을 위해 중광단을 결성한 이들은 대종교 계열의 인사들이다. 북간도[동만주] 지역(왕청)에서 결성되었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되었다.
- ② 민족 교육을 위해 북간도[동만주](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한 이들은 보재 이상설(1870~1917)을 중심으로 한 망명 애국지사들이다(1906년 8월경).
- ③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운 이들은 서간도[남만주] 지역으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이다(이회영, 이상룡 등). 이들은 남만주 삼원보에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각1911.4/1911.6). 신흥 강습소는 이후 1919년 5월에 신흥 무관 학교로 개명하였다.
- ⑤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동아일보이다(1931~1934).

42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42.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기 전 고향 생활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중일 전쟁이 시작된 뒤여서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지 못하면 기차표 사기도 어렵던 시기였어요.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보고 황국 신민 서사를 외워 보라고 시켰었지요.



- ① 원산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 ③ 조선 형평사가 결성되었다.
- ④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 ⑤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립되었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기 전 고향 생활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때는 중일 전쟁이 시작된 뒤여서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지 못하면 기차표 사기도 어렵던 시기였어요.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보고 황국 신민 서사를 외워 보라고 시켰었지요'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의 일이다.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고(1938.4.1), 시행된 것은 같은 해 5월 5일부터이다.

오답 해설>

- ① 원산 총파업이 발생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1929.1.13.~4.6).
- ②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미쓰야 협정이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1880~1959)와 중국 동삼성[만주]의 군벌인 장쥘린(1873~1928)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만주에서 한국인 독립운동을 체포하면 이를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것을 규정하였다(독립군 탄압).
- ③ 조선 형평사가 경남 진주에서 결성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1924.4.24). 조선 형평사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을 펼쳤다.
- ⑤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치된 것은 한국 병탄 전인 1910년 3월의 일이다.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1910~1918).

43 - 조선 의용대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자료는 (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가)은/는 중국 관내(關內)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 ①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 ②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④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⑤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정답> ②

'자료는 (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가)은/는 중국 관내(關內)*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38년 10월 중국 관내인 후베이성 우한의 한커우[한구]**에서 조직된 조선 의용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9.10.10).

*관내(關內)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의 성도(省都)이다(중국어 명칭임). 그리고 우한(武漢)은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의 세 도시를 함께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1949년에 합쳐짐).

조선 의용대의 대원 일부가 1942년 5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광복군 제1지대로 편성).

오답 해설>

- ①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은 부대는 대한 독립 군단(총재 서일)이다(자유시 참변, 1921.6.28).
-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한 부대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이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1932년 9월과 11월). 쌍성보는 흑룡강성 하얼빈 서남방에 위치한다.
- ④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9년 6월의 일이다. 우성 박용만(1881~1928)이 정한경(1891~1985) 등과 협력하여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커니(Kearney)시에 세웠다. 다음 해 헤이스팅스(Hastings)시로 이주하여 1914년까지 6년에 걸쳐 존속하며 9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 최신 군사 훈련을 받은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⑤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부대는 북로 군정서군이다(1920.10). 이들 독립군 연합 부대는 일본군과 10여 차례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보통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른다.

44 - 외솔 최현배

4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 ②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다
- ③ 북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다
- ④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다
- ⑤ 일제에 의해 조작된 105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정답> ①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제목 아래 '최현배'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목차에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 국어 운동의 길로 들어서다', '(가)', '광복 이후 국어 교재 편찬과 교사 양성에 힘쓰다', '각종 한글 교과서를 편찬하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외솔 최현배(1894~1970)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최현배는 조선어 학회 창립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다 1942년 10월에 일어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8·15 광복 때까지 복역하였다. 저서로 우리말본, 한글갈, 글자의 혁명, 나라 사랑의 길 등이 있다.

오답 해설>

- ② 1919년 5월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인물은 신한 청년당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파견된 우사 김규식(1881~1950)이다(1919.5.12).
- ③ 북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 의군부를 조직한 인물은 돈헌 임병찬(1851~1916)이다(1912.9~1913.5).
- ④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한 인물은 민족주의 사학자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15.6).
- 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인물들은 신민회 관련 인사들이다(1911.9).

45 - 5·10 총선거

45.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좌우 합작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 ㄴ.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ㄷ.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있었다.
 - ㄹ.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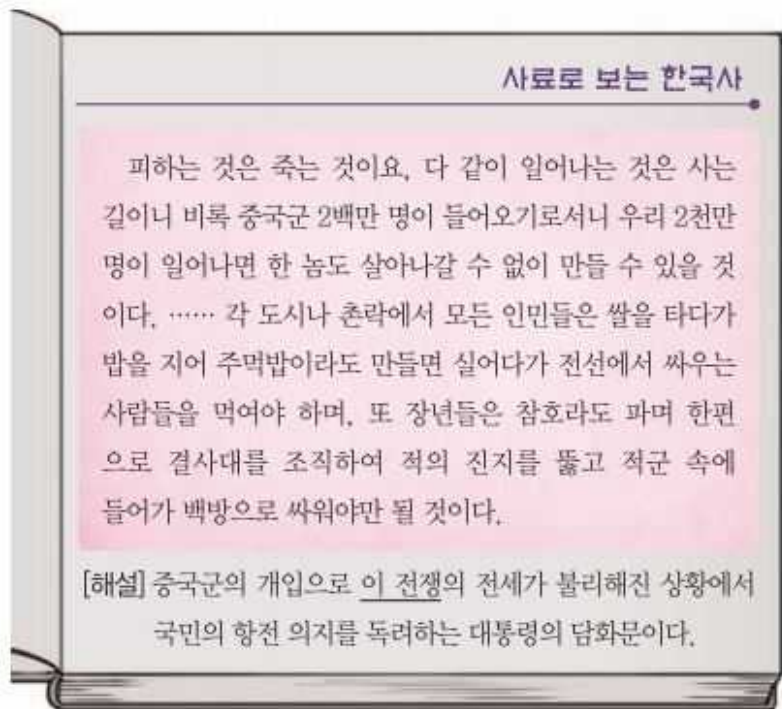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라는 제목으로 '회의 중인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투표하는 사람들', '투표 용지를 세는 개표 종사원'이라는 제목의 사진들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948년 5월에 있었던 '5·10 총선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ㄱ. 좌우 합작 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1946년 7월이고(1946.7.25), 이듬해인 1947년 10월에 해체되었다(1947.10.6). 좌우 합작 위원회는 1946년 10월 7일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 ㄴ. (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장면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60년 8월의 일이다(1960.8.12)(~1961.5.16). 장면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60년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 ㄷ.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제주(도) 4·3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제주도)의 국회 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 *제헌 국회 구성: 전체 의석 200석 중에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하고 198개구에서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이듬해에 치러졌다.
- ㄹ. 5·10 총선거는 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제헌 국회 구성). 제헌 국회 의원은 임기 2년이었으며, 1948년 5월 31일 개원하였다. 곧이어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상에서 5·10 총선거와 관련해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46 - 6·25 전쟁

46.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 ②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 ④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답> ②

'피하는 것은 죽는 것이요,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은 사는 길이니 비록 중국군 2백만 명이 들어오기로서니 우리 2천만 명이 일어나면 한 놈도 살아나갈 수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각 도시나 촌락에서 모든 인민들은 쌀을 타다가 밥을 지어 주먹밥이라도 만들면 실어다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며, 또 장년들은 참호라도 파며 한편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적의 전지를 뚫고 적군 속에 들어가 백방으로 싸워야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료에 대한 해설로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독려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이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951년 '1·4 후퇴' 직후인 1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격문(공보처 발표, '조국을 지키자. 어서 밀고 올라가자')으로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 강령을 밝히고 있다. 당시의 다급한 상황이 반영되어 어투가 매우 직접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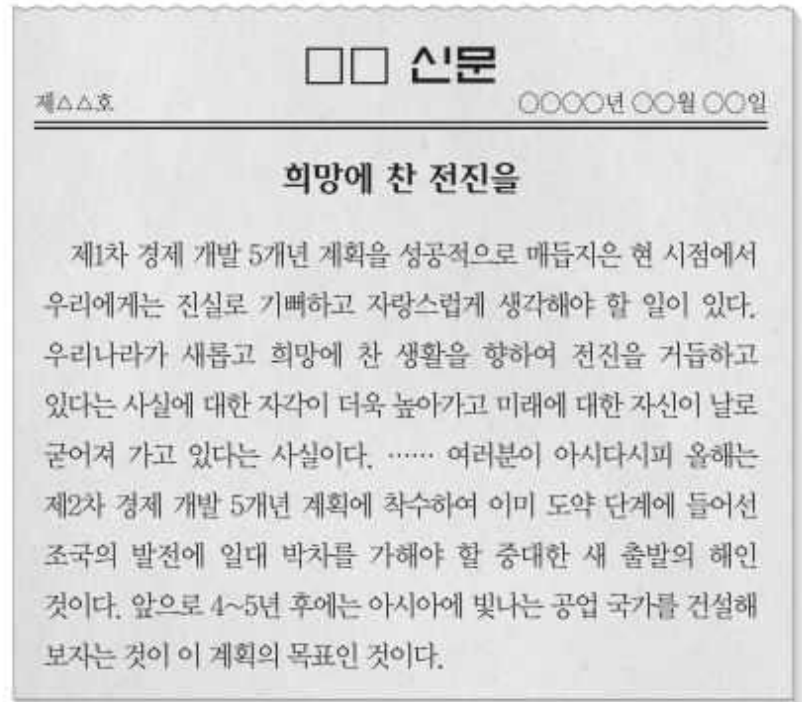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진 것은 1950년 8월 18일부터 동년 10월 27일까지(1차)이다. 또 1·4 후퇴가 시작된 1951년 1월 4일부터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2차) 임시 수도로 역할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2).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1893~1971)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태평양] 방위선이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밝혔다.
-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다(1953.10.1).
- ④ (미 해군의 정보 수집 보조함인)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68년 1월의 일이다(1968.1.23). 미국은 이후 한국 정부의 반발을 무릅쓴 채 북한과 비밀 협상에 들어가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 침범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납북된지 만 11개월 만인 12월 23일에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시신 1구를 송환받았다(승무원 82명과 시신 1구).
- 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줄여서 '국보위')가 설치된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직후인 1980년 5월의 일이다(1980.5.31).

47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47.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가)	(나)	(다)	(라)	(마)
1949 농지 개혁법 제정	1965 한일 협정 체결	1977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1996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2007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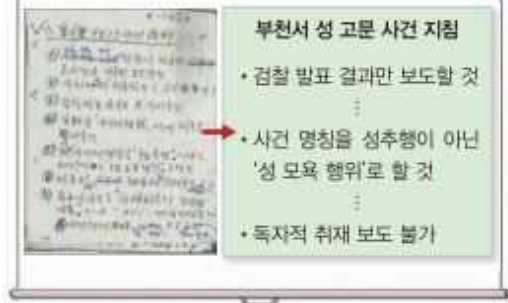
'희망에 찬 전진'이라는 제목 아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나라가 새롭고 희망에 찬 생활을 향하여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더욱 높아가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날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 단계에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대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새 출발의 해인 것이다. 앞으로 4~5년 후에는 아시아에 빛나는 공업 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올해는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1967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것은 1967년(~1971)].

연표에서는 1965년 한일 협정 체결과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사이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48 -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

48.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부천 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 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내린 정부의 보도 지침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이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하였습니다.



- ①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③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 ④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 ⑤ 긴급 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②

'이것은 부천 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 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내린 정부의 보도 지침 내용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부천시 성 고문 사건 지침'에는 '검찰 발표 결과만 보도할 것', '사건 명칭을 성추행이 아닌 성 모욕 행위로 할 것', '독자적 취재 보도 불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른바 '(경기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86년 6월의 일이다(1986.6.6~7). 같은 해 5월 3일에 있었던 사건(5·3 인천 사태*)의 관련자 색출을 명목으로 연행되어 온 학생 운동가 권인숙(1964~)을 문귀동 경장이 진술을 강요하며 성고문을 자행하였다.

*5·3 인천 사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열린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경인지부 결성 대회가 재야 및 학생 운동권의 격렬한 시위로 무산된 사건이다.

(여야 합의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즉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1987년 10월의 일이다(1987년 10월 29일 공포)(현행 헌법).

오답 해설>

- ① 야당 총재(김영삼)가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된 것은 1979년 10월의 일이다(1979.10.4). 여당 의원들(사실상 박정희 정부)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스지 기자 회견 내용을 문제삼아 김총재의 의원직 제명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 ③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된 것은 5·16 군사 정변 직후인 1961년 5월의 일이다(1961.5.19~1963.12.16).
- ④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죽산 조봉암(1898~1959)이 처형된 것은 1959년 7월의 일이다(1959.7.31).
- ⑤ 긴급 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1976.3.1).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재야인사들이 발표한 선언으로,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49 - 전북 전주의 역사적 사실

49.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답사한다.
- ②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배된 장소를 알아본다.
- ③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장소를 조사한다.
- ④ 기묘사화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를 검색한다.
- ⑤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 서원이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

정답> ③

'지도로 보는 우리 지역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1872년에 제작된 우리 지역 지도의 일부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시대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 감영, 조선 왕실의 발상지라는 의미로 한(漢) 고조의 고사에서 이름을 딴 객사 풍패지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사하는 경기전,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 안에 있는 상황사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지역은 전북 전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5월의 일이다[1894.5.8(음력)/1894.6.6(양력)].

오답 해설>

- ① 유형원(1622~1673)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장소는 전북 부안이다. 혼란한 세상을 피해 32세에 부안 우반동에 들어온 그는 52세에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반계수록을 저술한 시기는 대략 1659년(효종 10)에서 1664년(현종 5) 사이로 추정된다.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는 형식의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호구에 부과하던 역역을 토지에 일괄 부과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의 충실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 ② 후백제를 세운 견훤(재위 900-935)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아들 신검(재위 935-936, 제2대)에 의해 유배된 곳은 전남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이다(935.3-6). 이후 견훤은 금산사에서 탈출한 후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935.6).
- ④ 기묘사화로 유배된 정암 조광조(1482~1519)가 사사된 곳은 전남 화순 능주이다. 지금 이곳에 (화순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가 세워져 있다(1667, 현종 8, 전남 기념물 제41호). 적려란 곧 귀양 또는 유배되어 간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⑤ 돈헌 임병찬((1851~1916)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武城) 서원이 위치한 곳은 전북 정읍이다. 임병찬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 9월 (대한)독립 의군부를 조직한 바 있다(~1913.5).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50.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③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다.
- ④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정답> ②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공동 선언문에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표현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98년 10월에 있었던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가리킨다(1998.10.8). 정식 명칭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이다(11개 조항으로 구성).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 담화'를 기초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총리(1937~2000)는 김대중 대통령(집권 1998.2-2003.2, 제15대)과 이 선언을 한 뒤 불과 1년 반 뒤에 뇌경색으로 사망함으로써 오부치 파는 힘을 잃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 평양을 방문한 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과의 협의를 거쳐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2000.6.15)(5개 조항으로 구성).

오답 해설>

- ①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 ③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31.).

④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4월의 일이다(2018.4.27).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총 네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가 2018년 4월 27일의 (제1차) 판문점 회담이었고, 두 번째가 2018년 5월 26일의 (갑작스런) (제2차) 판문점 회담이다. 세 번째는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 회담이다. 네 번째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담'이다.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당시 50명 규모였으며,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 이 상 -